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3-03호 / 01월 15일

黨 16大에서 제기된 ‘新型工業化’의 내용과 과제

1. 개요

- 지난해 말 개최된 제16차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“정보화로 공업화를 견인하고, 공업화로 정보화를 촉진하여 높은 과학기술수준과 경제효율, 낮은 자원소모, 적은 환경오염, 인력자원 우위를 충분한 발휘할 수 있는 新型工業化로 나아갈 것임”을 밝힌 바 있음.
- 중국이 선진국과의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19세기에 사용했던 공업화전략이 아닌 첨단과학기술에 기초를 둔 이른바 ‘신형공업화’ 전략이 필요함.
- 동시에 중국은 신형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농촌의 낙후문제를 해결하고, 전통산업과 첨단산업간의 상호 보완작용을 촉진시켜야 함.
- 또한 화폐경제를 발전시켜 실물부문에 대한 자본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함.

2. 중국식 ‘신형공업화’의 의미

- 현재의 선진국들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한 수탈로 공업화를 이룩하였

으나, 오늘날은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공업화는 불가능함.

- 따라서 중국은 정보기술로 대변되는 과학기술혁명으로 신형공업화를 이룩해야 함.

□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신형공업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.

- 첫째, 정보화로 견인하는 공업화임. 정보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업화에 비해 ‘후발우위’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유리함.
 - 정보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신형산업을 파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과 결합해서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.
- 둘째,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경제효율과 경쟁력을 향상시킴.
 - 글로벌화의 진행, 세계적인 공업제품의 생산과잉, 경쟁 격화 등의 환경에서 중국제품은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여 품질과 가격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야 함.
- 셋째, 자원절약형, 환경친화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.
 - 전통적 공업화는 대량자원의 소모와 환경 파괴를 비용으로 지불하였으나, 현재 중국은 단순히 투입량만 늘리는 성장정책으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함.
- 넷째, 인력자본을 활용하는 공업화를 추진함.
 - 신형공업화는 동일 규모의 자본과 생산성 높은 소규모 노동력의 결합을 요구하는바, 고급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전략이 필요함.

3. 신형공업화 추진과정에서의 과제

가. 공업화 과정에서의 농촌문제

□ 과거 공업화와 농업의 관계를 보면,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게 되고, 이것이 도시지역 임금을 압박하여 공업발전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양상을 보였음.

- 그러나 현재는 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부족이나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, 오히려 공산품에 대한 농촌의 수요 부족이 공업발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.

○ 농촌의 소비수준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중국의 도시화 수준이 낮아 농촌에 대량 잉여인력이 존재하고, 농업생산력이 낮기 때문임.

- 따라서 공업과 농업,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하며, 농민소득의 증가와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전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함.

나. 첨단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의 결합

□ 첨단기술산업은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과학기술함량, 빠른 발전속도, 국민경제와 사회생활에 대한 침투, 견인 역할 등의 특징이 있음.

- 첨단기술산업은 1990년대 중반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지만, 아직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.

- 중국에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은 반드시 전통산업과 긴밀히 결합되어야 함.

○ 농업 및 전통제조업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바,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,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현대화해야 함.

다. 실물경제와 화폐경제의 관계

□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화폐경제도 동반 발전하게 됨. 화폐경제는 실물경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지만, 화폐경제의

지나친 발전은 거품현상을 야기하여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침.

- 화폐경제는 1) 실물경제에 자금 지원, 2) 실물경제의 위험을 분담하고, 거래비용을 감소, 3) 실물경제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, 4)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실물경제의 효율 향상, 5) ‘부의 효과’를 통한 소비와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함.
 - 그러나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경제의 발전은 채권의 과다발행, 은행의 불량대출 증가 등을 야기하여 실물경제의 질서를 해칠 수 있음.
- ☐ 향후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될수록 중국도 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이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도 증대할 수 있음.
-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향상시켜, 화폐경제와 실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함. (***)